

싱가포르의 石油産業과 현물시장동향

정 유부문의 경제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西歐의 메이저들은 아시아지역의 原油 및 석유제품 수요의 상당부분을 同지역의 현물시장 물량으로 공급하고 있다.

로얄더치셀, 칼텍스, BP 등 싱가포르에 있는 3대 메이저는 이미 싱가포르 석유시장을 형성해 나가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대규모 무역부를 갖고 있으며, 네번째로 큰 모빌은 최근 직원을 증원했다. 싱가포르내에 정제시설을 갖고 있는 엑슨과 세브론도 同國에 무역부를 두고 있으며, 텍사코는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메이저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현재 原油와 석유제품 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20여개의 독립계 석유무역회사들과 5~6개에 달하는 日本의 무역상사들이 밀집해 있는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거래이익은 감소하고 있다.

낙관적인 전망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石油무역업자 회의에서, 일부 석유회사 대변인들은 앞으로 10여년간 原油와 석유제품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시아지역의 에너지 소비는 기타 지역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시장은 늘어나고 있는 석유무역업자들을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70년대 중반에 중요한 석유현물거래시장으로 등장한 이후 계속 석유업계에 몸담아 온 사람들은 석유거래가 확대되지

않고 축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사적으로 말하고 있다. 메이저의 무역업자로서의 등장, 日本 회사들의 업무숙달(Sophistication)과 同지역 국영석유회사들의 발전으로 인해 제 3자의 기회는 감소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아시아의 석유판매시장은 필연적으로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석유전문가 로저 오스본씨는 주장했다. 메이저들의 현물시장 구매로의 전환은 또한 中東산유국들의 계획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메이저들은 한때 그들의 싱가포르정유공장에서 하루 1백만 배럴 이상의 中東原油를 처리,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였으나, 현재에는 그 물량이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공급량은 산유국과 장기계약하에 메이저들이 지불하는 높은 공식가격이 아니라 현물시장과 연동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정유공장 관계자들이 말했다.

「우리 싱가포르 정유공장에서는 여러달 동안 장기계약原油는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 메이저의 부사장은 밝혔다.

原油費에 못미치는 제품복합원가

싱가포르에서 가동중인 西歐메이저의 정유공장은 작년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 석유소식통은 말했다. 싱가포르 정유공장들의 경제성이 갑자기 악화되고 있는 것은 석유제품의 가격이 原料인 原油코스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유업자들이 흔히 부르는 이러한 賸의 제품복합원가(Netback)

는 세계적인 시장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싱가포르에서는 경제성장의 둔화로 약간 더 하락한 것이라고 한 석유전문가는 말했다.

아시아지역의 경제는 80년대말 다시 한번 好況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싱가포르 정유업자들은 고도성장을 회복하면 고도화시설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의 정유공장은 주로 舊型이어서 開途國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경유나 등유 등의 中間溜分을 최대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다.

東南아시아 정유공장들의 경우, 高度化 시설은 美國의 50%에 비해 총정제능력의 12%에 불과하다. BP와 칼텍스같은 일부 정유회사들은 高度化시설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에 있는 시설만으로는 高度化시설능력이 80년대 말까지 15%를 넘지 않을 것이다.

施設의 高度化

西歐의 메이저들은 高度化시설을 확장하기 보다 정제시설을 감축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회사관계자들은 밝혔다. BP는 곧 3만b/d 공장을 폐쇄할 계획이며 셸은 현재 싱가포르공장의 4개 unit 중 2개 unit 만을 가동중에 있다. 싱가포르의 제품생산량은 약 50만B/D 또는 생산능력의 50%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정유회사들은 이러한 생산수준이 80년대 말까지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정유공장들은 앞으로 더 폐쇄되고 합리화될 것」으로 美國의 석유전문가인 Mossavar-Rahmani 씨는 전망했다.

그러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들은 아시아에 있는 그들의 석유제품판로를 內國업자, 日本, 독립계 西歐석유회사들에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原油를 정제하여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下流部門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石油무역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셸이스턴社의 供給 및 무역담당자사는 말했다.

칼텍스의 싱가포르 정유공장의 시즈몬도씨는 메이저의 현물시장 참여강화를 단순히 高價原油정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정제부문에서의 收益性이 없는 한, 칼텍스는 子會社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현물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시즈몬도씨는 말했다.

독립계 무역업자들 타격받아

메이저들의 아시아 현물시장참여는 일부 독립계 무역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싱가포르의 전통적으로 현물판매에 주로 의존해 왔으며,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소규모수요를 공급해 왔다. 싱가포르에서 팔리는 석유제품의 절반정도는 현물시장과 연동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모빌社의 G. 호손씨를 비롯한 석유전문가들은 독립계 무역업자들이 아시아와 그 인근시장에서 석유판매를 확대하려는 메이저들과 손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무역업자들은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신규정유공장에서 아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의 제품을 소화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수많은 貿易業者들

일부 전문가들은 아시아석유시장이 너무 다양하고 협소하여 수많은 무역업자들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제품소비량은 증가할 것이나, 판로는 中東산유국들과 그들의 아시아소비국들로부터 점점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아시아市場은 유럽과 같이 큰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셸의 Henkes씨는 말했다. 國營석유회사들은 입찰이나 장기매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독립계 석유거래업자들에게는 불리한 움직임이라고 홍콩의 석유전문가인 오스본씨는 말한다. 그는 이어 「메이저들은 입찰에서 거의 패하는 일이 없다. 동시에 國營석유회사들은 거래의 번잡(Chains)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 (Asian Wall Street Journal 85. 10. 1)